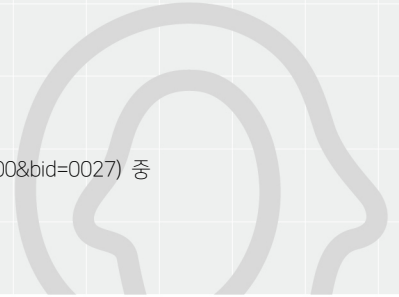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금연 정보는 AI가 찾아주고, 금연서비스는 클릭 한번에 예약

- AI 기반 검색과 맞춤형 금연서비스 추천·예약으로 새로워진 「금연길라잡이」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한주)은 11월 5일(수)부터 국민이 금연정보 및 서비스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을 개편하여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는 금연정보와 교육자료 제공, 금연자 소통 공간 운영, 온라인 금연 실천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으로, 국민 누구나 금연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번 개편은 ▲금연정보 제공처 일원화 ▲누리집 메뉴 정비 및 최적화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검색 ▲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추가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첫째, ‘금연두드림’과 ‘금연길라잡이’로 나누어 운영되던 금연 관련 누리집을 금연길라잡이로 통합하여 금연정보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하나의 접근경로를 통해 더 풍부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 메뉴를 정비하고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했다. 특히,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 (적응형 웹) 사용자의 접속 기기를 감지하여 PC, 모바일 등 각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누리집

- 셋째, 시범운영 중(‘24.11.25.~)이었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요약서비스가 정식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자는 다양한 자료를 복잡한 검색 없이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용자가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개인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추천 서비스 중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원하는 서비스의 등록 상담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 박순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길라잡이」 개편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금연정보와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금연 실천을 돕고, 금연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금연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금연길라잡이」가 국가를 대표하는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앞으로도 누리집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497. 건강증진과. 2025. 11. 5.

II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 원 규모 투자

-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달성 목표 -
- 4개 부처 합동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6-'32)'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0억 원(국고 8,383억 원, 민자 1,025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월 5일(수) 오후 1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

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498. 보건산업진흥과. 2025. 11. 5.

III

스웨덴부터 한국 기업까지... 인구문제, 세계와 현장의 의견을 듣다

- 2025 인구포럼, 다양한 목소리로 지속가능한 사회 방향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CBS(사장 나이영)는 11월 18일(화)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인구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 이번 포럼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CBS 나이영 사장,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비롯해 크래프트·임팩트스퀘어 등 산업계와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경희대학교 등 학계 관계자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 일반시민 등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업의 역할과 경영진의 리더십, 청년 창업, 인구구조 변화 속의 양육·돌봄 등에 대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포럼 1부에서는 ‘출산율 1.43의 경고: 복지국가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오사 한스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다. 한스 위원장은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직면한 출산율 하락 요인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조발제에 이어 ‘한국과 스웨덴이 맞이한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의 진행 아래 한스 위원장과 칼-올루프 주한 스웨덴 대사 간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 2부에서는 인구문제가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기업의 역할과 경영진의 리더십’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출산할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직원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은 국내 대표 게임 기업 ‘크래프톤’의 ▲최재근 실장을 비롯해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과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기업이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각각 주제 발표 후 토론을 가졌다.
- 3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와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인구위기 속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전략과 청년창업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공동의 여정을 위한 배려와 인식’을 주제로 ▲이현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유아 양육·돌봄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의 과제를 종합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APEC 국가들이 합의한 바 있다”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과제로서, 이번 포럼은 정부와 민간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평가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531. 인구정책총괄과. 2025. 11. 18.

IV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 종사자 상해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등 보장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2일(토)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 보

상한도 상향(사고당 5천만 원→1억 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등),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종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주요 변경사항**

■ 가입 대상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단위 신청)

■ 보장 범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장내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배상 책임	대인 배상	인당 1.5억 원 (사고당 5억 원)	10만 원	인당 1.5억 원 (사고당 5억 원)	배상책임액의 20% (50만 원 이하)
	대물 배상	사고당 5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10만 원 (50만 원 초과)
	대물 배상 (수행기관 재물손해)			50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① 종사자 →이용자	음식물 특별약관	인당 3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30만 원	인당 3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30만원
② 이용자 →제3자	형사 방어비용	5백만 원	-	5백만 원	-
	형사 벌금	2천만 원	-	2천만 원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장내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종사자 상해	상해 사망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해 후유장해	3천만 원*장해율		5천만 원*장해율	-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 원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180일 한도)	-
	상해 골절진단비	건당 25만 원		사고건당 30만 원	-
	상해 화상진단비	건당 20만 원		사고건당 30만 원	-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200만 원	-
	상해 수술지원비	-		10만 원~500만 원 (1~5종)	-
	상해 의료지원비	건당 10만 원~500만 원 (급수에 따라)		-	-
	상해 치료비 (종사자)	-		사고당 1천만 원 (본인부담 병원비 2만 원 이상 시)	인정치료비의 30%
	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	건당 30만 원		건당 30만 원	-
장애인 상해	상해 치료비 (장애인)	사고당 1천만 원	10만 원	사고당 1천만 원	인정치료비의 20% (50만 원 이하) 10만 원 (50만 원 초과)

※ 세부 내용은 약관 참고

■ 보험료 및 보장기간

○ 연간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1년 단위 가입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540. 장애인서비스과. 2025. 11. 20.